나는 소원한다, 고로 무식하다

(잠언 19:1~29)

1.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2.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3. 사람이 미련하므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4.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5.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6.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7.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나는 소원한다, 고로 무식하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나는 소원한다, 고로 무식하다'
오늘 제목의 뜻을 정확히 담기 위해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나는 세상을 소원한다, 나는 세상 안에서 소원한다, 고로 참 무식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카르트는 의도적으로 모든 존재의 확실성을 의심하였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나무가 있다면 철학적 마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에는 그저 나무일뿐입니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그 나무가 있는 것이 환상은 아닐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존재를 찾고 존재에 대한 사고와 깨달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생각을 쌓았더라도 결국은 허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카르트는 계속해서 의심한다는 생각의 작용자체가 거부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과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제1원리로 삼아 많은 철학 사상을 쌓아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제1원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복음과 연관된 여러 가지 말씀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연관 지어 생각할 때에 데카르트의 제1원리를 응용해서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세상을 소원한다, 고로 참 무식하다'라는 원리는 인생을 그릇되거나 실족하지 않게 이끌어 줍니다.
'세상을 소원한다'라는 말은 순간순간 다가오는 일상의 작은 바람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세상을 소원한다, 고로 무식하다’는 말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제1원리로 손색이 없는 말일뿐 아니라 십자가 생활화의 실제 효과를 나타나게 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작은 바람이 생길 때에 이 말을 떠올린다면 십자가 생활화를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말하는 소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 이해가 필요합니다.
본문을 보면 ‘가난’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가난에 대한 언급은 이미 잠언에서 여러 차례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10장 4절에서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라고 했고, 11장 24절에서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라고도 하였습니다. 14장 31절에서도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라고 하였고 17장 5절에서도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라고 가난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절 4절 7절 17절 22절에서 가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구절들이 앞뒤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가난에 대한 이야기의 비중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가난과 소원을 연결하여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라고 가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을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라고 가난과 연관하여 소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 ‘사람이 미련하므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라는 말씀도 1절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고, 4절에도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잠언을 이해하기 위한 비결은 맥락 없이 산발적으로 제시된 것 같은 말씀들 가운데서 연결성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산발적으로 보일지라도 내용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연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마음가짐의 불완전 때문에 연결고리를 다 찾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연결고리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목을 설명하며 세상을 소원하기 때문에 참 무식하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본문과 연결시켜봅니다. 1절에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이라는 뜻은 언뜻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살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실함은 완전함 안에서 행함을 의미합니다. 가난해도 완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라는 말은 나 자신이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가난 자체는 마음이 쫓기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압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함으로 인해 마음이 억압 받고 가난한 상황이 주어질 때에 염려와 걱정에 눌립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러한 가난이 판단과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를 완전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완전함의 원조를 성경에서 찾는다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완전하라’는 말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실함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하게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돈이 없어 죽을 지경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할 수 있습니다. 가난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적인 현실로 모시면 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가난을 하나님보다 나중 현실로 미루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하게 행함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 마음을 주는 것들만이 나의 현실이 됩니다. 가난도 사실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사실인데 완전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접촉하는 상태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완전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신월동 달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구제품으로 밀가루 2포대를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 밀가루로 시장에 있는 국수집에서 다 국수로 뽑으셔서, 여름 3개월 내내 오이냉국에 국수를 말아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할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는데 저는 할머니와 한 방을 쓰면서 할머니의 뒷수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 하나 사이로 주인집에는 전신이 마비된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한 밤 중에라도 제 이름을 부르면 달려가서 아저씨의 몸이 배기지 않도록 돌려 눕혀야 했습니다. 그 아저씨에게도 가족이 있었지만 자녀들은 너무 어렸고 아내는 힘이 없었기에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낮이나 밤이나 할머니 뒷수발을 하고 때로는 아저씨를 뒤척여주고 침을 닦아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식수가 언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주인집 식수까지 펌프로 퍼서 지게로 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7~8번을 반복하고 나면 허리가 펴지질 않았습니다. 당시의 저는 미래가 깜깜한 삼수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 시절은 잊을 수 없는 괴로운 시절이어야 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괴롭다고 느껴본 적

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세상과 접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집은 길가에 있는 코딱지만 한 방 두 칸짜리 슬라브 집이었는데 형들은 군대에 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옥상으로 올라가는 처마 밑에 앉아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담요를 뒤집어쓰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삼수생 주제에 공부는 하지 않고 성경은 물론 논어 불경 도덕경을 많이 읽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 가난에 마음이 접촉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찌들고 우울하고 가난한 환경에 접하지 않았기에 괴로움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의 예시를 통해서도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성실함 곧 완전하게 행함의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곧 세상에 마음을 접촉하지 말고 대신에 하나님께 접촉하라는 것입니다. 가난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 마음의 우선적 접촉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현실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십자가 생활화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세상에서 마음을 떼는 것이 옳았습니다. 가난도 사실이고 하나님도 사실이라면 둘 중 어느 것을 현실로 삼을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처지에 놓인 내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접촉하고 세상과의 접촉을 끊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완전하게 행함입니다.

그리고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패역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접촉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에 생각과 말이 패역함으로 나타납니다. '패역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구부러지다, 뒤틀려지다, 왜곡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곡되다'라는 것은 진리를 비틀어서 가렸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가난에 접촉해서 생각하는 동안에는 결코 진리에 부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이 몰려오면 그 사실에 마음을 접촉시킨 채 느끼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살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않아야 하는 것은 가난한 자뿐만이 아닙니다. 부유한 자도 마찬가지로 부유하다는 사실에 마음을 두면 마음은 똑같이 패역해집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에서는 단 하나의 진실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접속한 상태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는 것이 미련함입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소원과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2절을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다아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다아트는 '야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야다는 부부가 잠자리를 같이 하므로 서로에 대해 갖는 앎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몸과 마음으로 만남과 접촉함을 통하여 체험하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다아트는 이러한 접촉을 통한 체험을 통해 아는 야다에서 나온 파생어입니다.

그리고 '소원'은 우리가 아는 의미대로입니다. 기쁨과 만족을 위하여 꼭 이루고 싶어 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지식 없는 소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 없는 소원은 곧 하나님에 대한 앎이 없는 소원을 뜻합니다.

시편 111편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접촉하는 가운데 체감하여 아는 바가 없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등의 세상의 가치에 접촉하여 가지는 소원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식 없는 소원 즉 무식한 소원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갖는 소원은 바로 부자 되는 것입니다. 부자 되는 소원을 갖는 이유는 마음이 돈이라는 대상에 접촉한 상태에서 돈 맛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부자가 되겠다는 소원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이 소원은 오늘 본문이 경계하는 지식 없는 소원 즉 무식한 소원입니다. 즉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른 부분에서도 소원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먼저 시편 37편 4절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14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은 '여호와를 기뻐하면 소원을 이루시리라'는 것입니다. 소원을 갖기도 전에 이미 기뻐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경계하는 지식 없는 소원의 반대인 지식 있는 소원 즉 유식한 소원입니다. 무식한 소원은 소원을 이룸으로써 기쁘고 만족하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 갖는 소원이 다 이러합니다. 내가 돈 많이 벌면 얼마나 좋을까? 건강하면 얼마나 좋을까? 자녀가 서울대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승진하면 얼마나 좋을까? 다 마찬가지로 무식한 소원입니다. 이러한 소원들 때문에 삶은 단 한 순간도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는 반대로 항상 불행하고 걱정이 있고 우울하고 짜증납니다. 그 원인이 바로 무식한 소원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식한 소원은 소원을 이루어서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하려는 것입니다. 이 반대가 되는 유식한 소원은 하나님으로 이미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한 상태에서 갖게 되는 소원입니다. 이러한 소원은 다 이루어지리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25절에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체감적 앎을 뜻하는 야다라는 단어를 세상에 적용 시킨 자들 곧 무식한 소원을 가진 사람들은 소원을 이룸으로 기쁨과 만족

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소원 때문에 인생에 편할 날이 없을뿐더러 소원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유식한 소원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과 먼저 접촉합니다.
예를 들어 동료들은 다 승진했는데 나만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승진 못하는 사실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중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현실로 삼을 것입니다. 마음을 승진에 접촉시키고 그 맛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다의 의미를 충족시켜야 할 대상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기 위해 승진 못하는 상황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과 접촉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동안에는 세상에 대한 바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웃고 감사하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생깁니다.
본래 세상에서 말하는 소원은 만족한 상태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원은 불평이 나오고 부족함을 느낄 때에 생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동안에 생겨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주어진 결과입니다. 그럴 때 생겨나는 소원은 다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무식한 소원의 반대인 유식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접촉하여 체감적으로 아는 지식에서 생겨나게 된 이루어지는 소원입니다. 참 잠언의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3절을 보면 '사람이 미련하므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자꾸만 뒤틀리고 왜곡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이유는 2절에서 말한 무식한 소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소원을 이루어 기뻐하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접촉하여 체감하는 유식한 소원을 갖는 길은 십자가뿐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곧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길 외에는 하나님과 접촉할 길이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이 가난일수도 있고 부유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러한 세상적 사실에 마음이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부유함일지라도 그것에 마음에 접촉한다면 기쁨과 만족은 사라집니다. 더 많이 벌어야겠다는 욕심이 생기고 돈으로 허세를 부리려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굽게 만들 것입니다.
4절 6절 7절을 보면 일반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4절을 보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6~7절은 선물을 많이 주어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게 친구로 다가오는 이들은 나를 좋아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탐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무식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나의 친구가 되려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친구도 기쁨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아 친구를 만날 수는 있을지언정, 친구로 인해 기쁨을 얻겠다는 소원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해석해서 너그럽고 선물을 많이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식한 소원으로 마음을 채우고 사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소원을 따라 친구로 행세할 수는 있어도 결코 나 자신을 위해 도움을 주는 자들이 아님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소원에는 무식한 소원과 유식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려내서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위해서라도 무식한 소원으로 이끌리는 내 마음을 살피며 날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무식한 소원이 죽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행복을 먼저 누림으로 인한 유식한 소원이 생기는 멋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